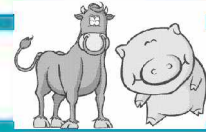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보험세의 큰 틀 속에 소폭의 등락



연초부터 시작된 소 값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연말 수급 차질과 쇠고기 최대 성수기인

철을 앞두고 농가의 출하물량 조절과 유통업체의 명절 물품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상황이 악화될까봐 피어줄 바라는 농가들의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 현시점에서 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의 소 값이 농가에 자중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 값 지속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한-미간 협상에 의해 완화된다면 신규투자나, 무리하게 업식을 늘린 농가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차피 예견된 소 값 하락이라면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계획된 정상 준하와 고단육 생산 등 수입산 쇠고기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단지 적어도 오는 상반기까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금의 소 값은 그대로 유지되어 소폭의 등락을 나타낼 것을 예상한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농가와 정부가 대책을 강구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찾잠속 태풍이 될 수 있다.

돼지

상순 약보합, 하순 하락

그 동안 지속되었던 고돈가에도 불구하고 양돈주변의 상황은 어려움의 연속이다. 한마니로 빛 좋은 개살구다. 소보상 전병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사료 가격의 인상, 한미FTA 등 여러 악재가 발생했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은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량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수입물량은 가격에 따라 빠르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얼어붙은 소비시장과 망막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반쪽의 최대 명절인 설도 이룰 수 없는 모양이다. 올 들어 수입돼지고기 유통시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불투명으로 인해 붉을 뽕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수입돼지고기의 전시장이 된지 오래다. 국내 양돈산업을 수입육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깊이 있게 수입육의 시장잠식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양돈농가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다. 설 연휴 수요 증대를 감안하더라도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명절이 끝난 이후엔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트뉴스 제공>

